



선지동산 2004년 2월호 원고.

한국적인 신학교육을 위하여

변 중 길 교수(신약학, 교무처장)

필자가 모교에 와서 가르친 지도 벌써 12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늘 젊은 교수, 젊은 교수 하더니 이제는 그런 소리도 별로 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거쳐갔으며, 벌써 목사가 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웠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풀어나가는 재미로 지내오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훌륭한 제자들을 배출하여 한국 교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모든 교수들이 다 느끼는 것이겠지만 왠지 씩씩한 생각이 든다. 왜 그런 것일까?

우선 급격한 문화적인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0여 년 사이에 한국 사회는 급격히 변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스승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수업에 참석하고 학점만 따서 졸업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예의 없고 무정하고 신의 없는 학생들을 맞이하는 한국 선생들의 좌절감은 공통된 것이리라.

둘째로 학생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 신학대학원 3년 내내 쫓기다 졸업하고 만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 물론 꼭 시간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다. 계속되는 수업과 과제물, 힘겨운 시험과 교회 봉사, 먼길을 다녀야 하는 데서 오는 육체적 피로와 경제적인 부담, 가정과 자녀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학우들을 3년 내내 시달리다 겨우 졸업한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실망감과 영적 좌절감 등으로 인하여 신학대학원 3년은 그야말로 삭막한 광야가 되고 만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되돌아보며 생각해 본다.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신학교육은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제공하는 커리큘럼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신학교육의 틀은 누가 제공한 것이며, 어떻게 해서 짜여진 것인가? 필자도 모른다. 그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고 있을 뿐이다. 물론 그 동안에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 수년에 한 번씩 교과과정을 개편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제도도 개편하고 다양한 선택과목도 제공하고 등등,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처럼 교과과정을 좀 개편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성싶다. 뭔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 한국의 신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은 여전히 지식 중심이다.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따서 졸업하는 식으로 신학교육이 이루어진다. 경건훈련은 물론 실시하고는 있지만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학교에 학적부는 있지만 경건기록부는 없다.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심지어 자주 빼먹고 재주를 부려도 진급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며 졸업에도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인격 지도에 대한 것도 말만 있을 뿐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별로 없다.

그러나 막상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에는 지적인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경건의 측면을 함께 중요하게 본다. 어쩌면 이것들을 지식보다도 더 중요하게 본다. 그런데도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노력을 지적인 교육에만 투자하고 있다. 즉, 3분의 1 부분에만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3분의 2 부분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이 나머지 3분의 2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이며 교회에서도 아우성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한국적 상황과 시대 조류가 큰 문제이긴 하지만, 신학 교육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너무 서구식 신학교육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와는 너무나 상황이 다른 서구를 무비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적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국의 신학교는 한국의 교회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곧 한국적인 신학교육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3분의 1 교육이 아닌 전인교육이 아닌가? 우리는 서구식 신학교육 모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교육 모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신학교육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뭔가 생기가 도는 신학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